



예탁원, 우수 클라우드펀딩 K-Camp IR 콘서트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3일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후속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7회 K-Camp IR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IR 콘서트에는 스마트핀텍 등 클라우드펀딩 성공기업 9개사와 스파크랩,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센터 등 투자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3일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현장 참석자, 비대면 참여자(화면)들이 '제7회 K-Camp IR 콘서트'에 참석했다. /한국예탁결제원



DGB대구은행-대구지방세무사회, 상호협력 맞손 DGB대구은행과 대구지방세무사회는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상호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DGB대구은행은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대구지방세무사회는 DGB대구은행의 마케팅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명호 DGB대구은행 마케팅본부장(왼쪽)이 구광희 대구지방세무사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동국제약, 리틀야구연맹에 구급함 등 전달 동국제약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을 위해, 야구용품과 구급함을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전달했다. 동국제약은 이날 3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 '화성드림파크'에서 열린 '2020 리틀야구 올스타전' 참가 선수들을 위해, '마데카셀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야구점퍼와, '마데카셀 연고' (의약외품) 등이 담긴 구급함을 전달했다. /동국제약



롯데리아,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인증식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실시한 '2020 국가고객만족도지수(NCSI)' 패스트푸드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인증식에서 롯데GRS 남익우대표(좌)가 시상하고 있다. /롯데리아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직무대리 ◇경제구조개혁기획관 이대희 ◇정책기획관 유형철

부음

- ▲ 김옥균씨 별세, 정귀순씨 남편상, 김복인씨 형제상, 김강일(키움증권 감사총괄임원)-김강남(우리투자과의원 원장)-김강훈-김미영씨 부친상, 송호정-홍명희씨 시부상, 김우성씨 장인상 = 4일 오전 1시,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춘천 안식원 6일 오전 7시, 033-258-9403.
- ▲ 조중애씨 별세, 이상열(GS 부장)-유열(LG 이노텍 책임)-총열(C&C네트웍스 대표)씨 모

친상 = 4일 오전 0시, 서울성모병원 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2-2258-5940.

- ▲ 김규택 씨 별세, 김대진(전 프로야구 SK와이브스 루키팀 총괄코치)씨 부친상 = 4일, 대구 삼일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6일 오전 10시 30분, 053-627-4400.
- ▲ 배송한씨 별세, 배휘덕(법률사무소 성연 대표번호사)-미영씨 부친상 = 3일 오전, 대구동산병원 장례식장(동산동) 201호, 발인 5일 오전 11시, 010-9354-5428.
- ▲ 김유선 씨 별세, 김옥수(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씨 부친상 = 4일 오전, 광주 남도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062-223-7715.

현재 리쇼어링은 불가능



김필수 역
차 이야기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폐쇄와 경제적 영향이 한도를 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어느 한곳의 영향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커졌고 특히 글로벌 소싱의 한계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은 더욱 이러한 글로벌 소싱의 특성이 두드러진 산업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주력 부품 등 관련 산업 중 핵심 산업은 자국에 두고자 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지주의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근거리 공급망에 대한 요소가 가미되면서 해외의 영향에 대한 특성을 견딜 수 있는 몸집을 키우는 노력도 고만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국내로 되돌

아온 기업은 약 80개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다.

그것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진출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예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정부에서 리쇼어링을 위한 각종 혜택을 늘린다고 하면서 세금 혜택 등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부정적인 시작과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의 기반은 고비용·저생산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의 등 1고 3저 현상이다. 고속열 인력이지만 중국이나 동남아도 어느 정도 숙련된 생산직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와의 차별화가 없다. 여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연봉은 큰 차이가 있고 부품비 자체도 아직 중국 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굳이 국내에서 생산할 이유도 없다.

둘째로 노사 불안정이다.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강하고 매년 임단협을 통한 임금협상 등 밥 먹듯이 하는 노사 불안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3~5년 임단협과 달리 매년 하다 보니 그해에 협상을 마무리 못하면 그다음 해에 두 번의 협상

을 하는 등 웃지 못할 심각한 노사현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정부의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이다. 법인세 인상, 각종 세수 확보로 인한 부담은 물론이고 반기업적인 규제나 제도가 우후죽순식으로 정립되고 있어 점차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비한 전환 교육이나 업종 전환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나 노조에서는 도리어 줄어드는 생산물량을 보존하기 위해 모터와 인터버 등 핵심 전기차 부품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우길 정도가 되었다.

네 번째 국내의 각종 제도와 규정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워낙 규제가 얽혀있다 보니 어느 것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업하기 힘든 조건이다. 없는 규정도 유권 해석해 다시 규제로 만드는 국가이니 심각성을 넘어서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수술대에 올려 바꿔주기 전에는 현재의 리쇼어링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자체의 근본적인 혁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기업 유치는 어려울 것이다.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

KSD나눔재단, 취약층 자립지원 공모사업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전달 대상자 맞춤형 지원사업에 활용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지난 3일 'KSD 마음어음 지원사업' 후원금 2억원을 사업수행 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및 아동·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공모·후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인 및 시설 퇴소 아동·청년 등 사회 복지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신청한 총 65개 기관 중 심사를 거쳐 장애인 관련 3개, 아동·청년 관련 2개 기관 등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들에는 사업 후원금으로 각각



지난 3일 이명호 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오른쪽)이 강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장과 'KSD 마음어음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을 위한 기념식 이후 포즈를 취했다. /한국예탁결제원

4000만원이 지원돼 내년 8월까지 해당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명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KSD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미혼한부모 맞춤형 뷰티 솔루션 제공

CJ올리브영 온택트 카운슬링 진행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온 CJ올리브영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CJ올리브영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미혼한부모의 심리정서 건강 증진을 위한 '온맘다해'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까지 미혼한부모에게 맞춤형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溫)택트 카

운슬링'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비대면으로 시행되는 이번 카운슬링은 CJ올리브영 직원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장 내 태블릿PC에 설치된 피부문진 서비스 앱(App) '올영EZ'를 활용, 개별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체계적인 피부 측정과 정확한 진단, 상품 추천을 토대로 미혼한부모의 자존감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미혼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하는 모습 /CJ올리브영

카운슬링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미혼한부모로부터 서면으로 피부 문진 답변을 전달받아 '올영EZ'를 통해 피부문진 결과를 직접 확인, 개별 솔루션을 작성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